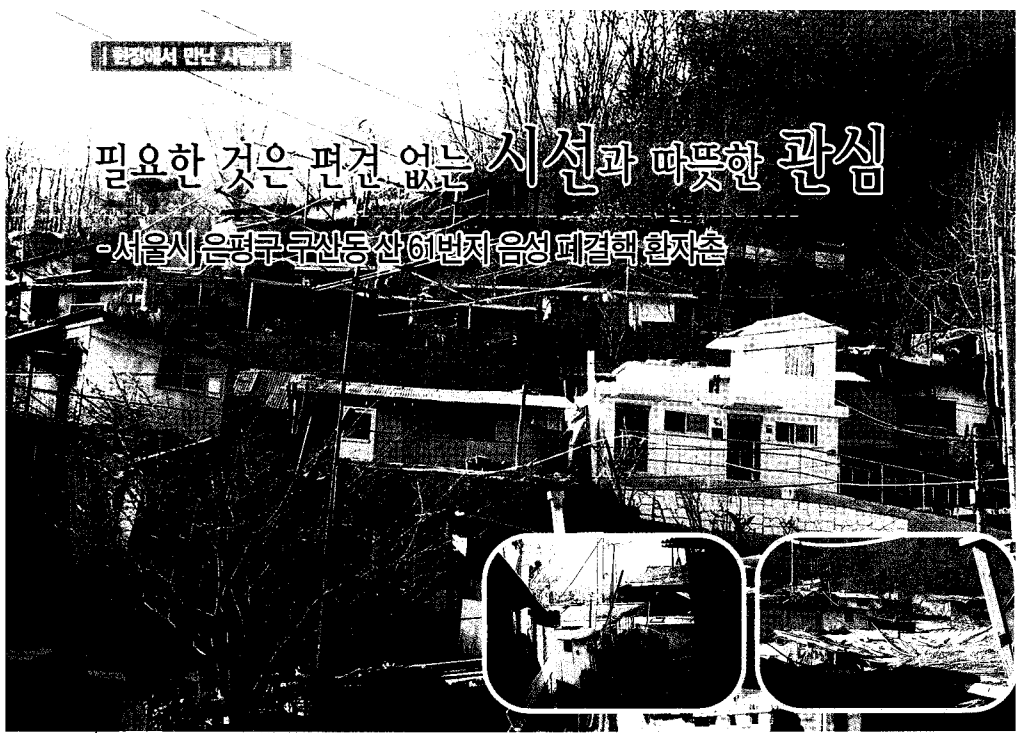


필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산 61번지 음성 폐결핵 환자촌



산중턱에 자리잡은 음성 폐결핵 환자들의 보금자리. 넓은 지붕이 이들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안 먹고 안 타고 만다고 그래. 오르내리기 힘드니 쌀 한 봉지 받아다 먹기가 어디 쉬워야 말이지.”

기력이 쇠할대로 쇠한 탓이라며 굳이 둘러대지 않아도, 61번지 주민들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마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족히 알만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오를 수 있을만한 좁은 계단과 비탈길, 집 외벽보다 더 자주 눈에 들어오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벽 한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비바람을 막기 위한 것인지 벽을 따라 둘러놓은 천막, 그리고 지붕 삼아 올려둔 판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위에 얹어놓은 벽돌 조각이 궁색한 살림살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가끔씩 햇볕에 몸을 말리는 것조차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다.

'혼자 살림'에 익숙한 산 61번지 사람들의 겨울나기

유난히 길다는 구산동 산 61번지 음성 폐결핵 환자촌의 겨울. 사람들의 발걸음도

인색하지만 이들에겐 자연 또한 인색한 존재로 느껴진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겨울 날씨엔 거동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가 곤욕스럽기 짝이 없다.

마을의 공동세탁장에 놓여진 두 대의 세탁기(지금은 그마저도 고장이 나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로 세탁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겨울 빨랫감은 큰 골칫거리다. 게다가 화장실이라고는 군데군데 놓여진 이동 화장실과 마을 입구에 있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니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겐 그마저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마을 어디에서도 젊은 사람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다. 가정이란 단어를 쓸 만한 가정 또한 없다. 가구 수만 알아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가 '혼자 살림'을 살고 있다.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것과 대부분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를 보듬을 기운은 없고 산지 오래다.

가끔씩 방문해 말벗이 되어 주는 젊은 친구들과 찌꺼며 반찬을 해다 주는 교회 신도들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일 정도로 61번지 사람들의 삶은 건조하다.

마을 윗쪽에 혼자 살림을 살고 있는 우민웅 씨, 그에겐 가고 싶어도 마땅히 갈데도 갈수도 없다는 것이 요즘의 불만사항이다. 지난해 집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방 한켠에 살림 도구를 갖추고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그이의 삶도 건조하긴 매 한 가지다.

**그동안 구산동 땅값을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들이라며 비난을 받아왔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나마 있는 판자집에서조차
밀려나야 하는 현실이다.**



방문한 너른사랑 회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민웅 씨 '혼자 살림'을 살고 있는 그에게 가끔씩 찾아주는 말벗은 큰 위안이 된다.



매달 홀수 주마다 이 마을을 찾아 반찬을 판매하고 독거 노인을 방문하는 너른사랑 멤버들

매달 홀수 주마다 이곳 61번지를 찾는다는 자원활동단체 '너른사랑' 멤버들이 그나마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단골손님이다. 일주일 내내 귀한 말벗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듯 그는 너른사랑 회원들이 찾아들자 익숙하게 방 한쪽 자리를 내주

었다.

“계란이라도 삶아 줄까”

“아이고, 저희가 맨날 와서 아저씨 계란 다 먹어치우고 가서 어쨌요?”

“이거 나 다 못 먹어. 어차피 그냥 두면 끓아서 못 먹는다구.”

딱히 뭔가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저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듯 그는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벗 '너른사랑'

“너른사랑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공동세탁장에서 반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홀수 주 오후엔 반찬을 들고 이 마을을 찾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 마치 마을 사람들과 너른사랑 회원들간의 오랜 약속이라도 된 듯 방송이 나가자마자 자연스레 하나 둘 반찬을 사들고 돌아가며 “너무 싸네. 더 줘요.” “죄송해요. 한 집에 한 봉지씩 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남으면 더 드릴게요.”라며 흥정 아닌 흥정을 하는 모습도 진풍경이다.

'너른사랑'은 91년도에 처음으로 이곳 폐결핵 환자촌을 방문하여 진료 및 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원활동단체다. 일반 대학생과 연

대의대 레지던트로 구성된 이 모임의 멤버들은 각각 흡수, 짝수 주로 나뉘어 활동 해오고 있다.

학생으로 구성된 흡수 주 멤버들은 미리 반찬을 준비해 와 마을 사람들에게 5백원에 팔고, 독거 노인을 방문해 청소를 하거나 말벗이 되어준다.

레지던트로 구성된 짝수 주 멤버들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약을 나눠주기도 한다.

자원봉사라는 표현을 이들 스스로 꺼리는 것은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뭔가를 베푼다고 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꾸준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계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 7년째 환자촌을 방문하고 있는 강신일 씨는 “어떻게 생각하면 황금같은 주말 시간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겐 기껏해야 하루 4시간, 한 달에 10시간 정도를 나누는 것이니 부담은 전혀 없다.”며 자신들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한다.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것이 이들을 두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다. 결핵환자촌이라는 불림처럼 결핵환자들이 칩거하는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이 있지만 이들은 이러한 편견마저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오늘은 반찬 판매가 있는 날 공동세탁장에서 방송이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나와 반찬을 사들고 돌아간다



씩수 주에 61번지를 방문해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고 약을 나눠주는 연대의대 레지던트

건강한 청년들이다.

“결핵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그런 불안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여기 사는 분들은 음성 폐결핵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 전염될 우려는 없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겐 결핵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음성 폐결핵 환자층을 몇 년 동안 방문해왔던 만큼 이들에게 결핵에 대한 지식과 사회복지 관련 정보는 기본이다. 이곳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고 같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것 또한 너른사랑 식구들의 역할이다.

간헐적이지만 찾아주는 이가 있으니 정겹고, 내 손으로 뭔가를 대접하고 내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지만, 산61번지 사람들의 앞날은 사실상 갑갑하다. 현재 마을 앞 연립주택이 재공사에 들어가고 완공되는 2003년쯤이면 61번지에도 어떤 변화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언제라고 짐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을도 재개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산동 땅값을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들이라며 비난을 받아왔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나마 있는 판자집에서조차 밀려나야 하는 현실이다. 마을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이제는 사회로부터도 본격적으로 외면당해야 하는 현실. 준비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아니더라도, 다만 편견없는 시선으로 관심을 갖아주는 사회가 이들에겐 그림다. †

글 · 홍미정(본지기자)